

# 자동차 62만대 증산체제 본격 가동... 수출 수출 '날개' 달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2014년은 도약의 한해였다. 지난해 완성된 62만대 증산체제가 올해 본격 가동됐고, 전략 수출차종인 '쏘울'은 세계시장에서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가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세계적인 완성차 공장으로 각인시켰다. 광주 수출 150억 달러 시대, 광주시의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2014년을 조명해 본다.

## KIA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2014년 결산 <상>

### 증산 바람타고 생산 신기록 잇단 갱신 광주 수출 30% 차지... 지역 경제발전 견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 프로젝트는 2009년 9월부터 50만대 양산체제에 돌입한 뒤 2011년 48만8154대라는 사상 최대 생산실적을 달성하는 등 자신감이 충만했던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출발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증산이 추진되자 지역의 기대감 또한 높아졌다. 한국은행 광주지점 남분부는 생산이 50만대에서 62만대로 늘어나는 경우 광주지역경제에 미치는 생산 유발효과는 2.7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0.6조원, 수출유발효과는 12.8억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2013년 6월 증산체제가 가동된 뒤 효과

는 바로 나타났다. 그해 9월 기아차 교섭이 타결되고, 10월부터 특근이 재개되자 1개월 동안 4만 6215대를 생산했고, 11월에는 월 5만대를 생산, 기존 월간 최대 생산기록을 2년 만에 갈아치웠을 뿐만 아니라 광주공장 사상 최초로 월 5만대 생산을 이룩하기도 했다. 특히 증산 덕분에 2005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인 419명을 채용해 지역의 유능한 기술인력들이 광주공장에 대거 입사해 청운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증산 바람 타고 생산 뚝뚝... 신기록 잇따라 달성>=2013년 하반기의 상승세를 안고 출발한 2014년, 오랜 기간 마무리되

지 않았던 봉고 트럭 증산까지 1월에 완료하고 완전한 62만대 증산체제를 구축했다. 광주공장은 연간 생산목표로 53만대를 세웠다. 1965년 설립한 이래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연간 생산 50만대의 벽을 깨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장담은 현실로 나타났다. 1월 4만4410대, 2월 4만5357대의 월별 생산량을 기록하더니 3월에는 5만740대를 생산해 2013년 11월을 세운 생산신기록을 3달 만에 갈아치웠다. 이것도 잠시, 4월에는 5만1100대를 생산해 또다시 신기록을 갱신한 광주공장은 7월 5만3580대를 만들어 연중 월별 최고기록을 세웠다. 12월 마지막 생산이 한창인 광주공장은 올해 교섭 장기화 등으로 예상치 못한 생산차질은 있었지만 당초 세운 연간 생산목표 53만대 달성을 자신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침체에, 국내 자동차 시장의 수입차 약진, 엔저 심화로 녹록치 않았던 국내외 자동차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광주공장의 이러한 양적인 성장은 의미



광주지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전경.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수출 자동차 산업 성장바람 타고 뚝뚝=높은 성장을 이룩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생산량 증가는 지역 수출증가로 이어졌다. 올 3분기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광주지역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한 39.5억 달러를 기록했다. 25.1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전국 17개 지역 중 수출 순위 9위를 기록 중이다.

이 가운데 승용차는 전년 동기대비 40.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1월 기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거둔 총 생산량 48만3687대 중 78.3%에 해당하는 37만 8763대가 수출차일 정도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수출 비중은 높다. 이미 광주지역 수출의 30% 이상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수출차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생산량 증가는 지

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아자동차의 생산량 증대가 곧 관련 부품업체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계속된 투자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고려인 마을 어린이에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인 25일 산타복장을 한 광주지역 이마트 직원들이 광주시 광산구 고려인마을 찾아 주민들에게 신발과 완구 등을 선물하고 있다. 이마트는 이날 물품전달 외에도 음식나눔과 축하공연을 결정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마트 제공>

## 광주·전남 소비심리 소폭 상승 12월 소비자심리지수 99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소비심리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가 12월 들어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수치가 여전히 기준을 밑돌고 전망치 지수가 낮아 소비심리 개선을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12~22일 광주·전남 530가구를 대상으로 12월 소비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역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9로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

리가 과거(2003~2013년)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는 6월부터 오르내림을 반복한 뒤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하락했다가 이번에 반등했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생활형편 소비자동향지수(CSI) 역시 90으로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6개월 후 전망치도 94로 전달보다 1포인트 올라갔다. 연초부터 등락이 심했던 향후 경기전망 CSI는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수가 81로 여전히 경기가 좋지 않

을 것으로 전망한 소비자가 많았다. 15개 지표 가운데 5개 지표가 하락했고, 기준치 100을 웃돈 지표는 6개에 불과했다. 취업기회전망CSI는 79로 전달대비 5포인트 하락했고, 금리수준전망CSI는 84로 전달대비 4포인트 하락했다. 현재 가계저축CSI는 89로 전달대비 1포인트 상승한 반면 가계저축전망CSI는 90으로 전달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 현재가계부채CSI는 105로 전달과 동일한 반면 가계부채전망CSI는 103으로 1포인트 상승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무주택자이면 세대주 아니어도 청약 가능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  
앞으로 무주택자이긴 하면 세대주 아니어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청약에서 당첨되면 최우선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주택공급

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그간 청약 자격의 근간이 되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결혼해서 세대주 지위를 잃으면 청약 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때도 1세대에 1주택만 공급된다.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도 단지·동 또는 가구 단위로 주택을 우선공급한다. 단 이렇게 공급받은 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이나 5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고,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로는 쓰지 못한다. 임대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 전원 주택지 매매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
- 328평, 33가구중 1
- 택지조성 공사중
- 2015년 5월 완공 예정
- 조성 후 평당 80만원 예상
- 매매가 1억 312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

## 빌라 3층 34평 매매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광천 파크 빌라 3층 304호
- 2013년 준공, 5층중 3층, 전남향
- 시세 및 감정가 1억 9천만원
- 매매가 1억 7천만원(일시불)
- 즉시 입주, 내부 깨끗함

주인직매 H. 010-3180-8900

## 특수경매 배우면서 단독·공동 투자 하실 분!

**경매 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분사 결정
- ▶ 낙찰물건에 투자하실 분!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 오천경매 H.010-3605-5000**